

후덥지근 날씨, 전력 수급 '고비'...원전 투입으로 숨통

최대 전력 수요 상한 전망 9만5700MW

전력 수급 정보 '준비' 발령 가능성도

지난달 아슬아슬했던 전력 공급 예비력이 이달 들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 시기로 예측된 8월 둘째 주로 접어들며 전력 수급에 대한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 장마 소식에도 습도가 높고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후덥지근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계획예방정비를 받던 일부 원전이 재가동되며 전력 공급 여유는 어느정도 늘어난 상황이다. 8월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

어 일일 최대 전력 수요는 9만 메가와트(MW)를 크게 하회했다. 1~7일 중 5일 오후 6시 기록한 8만6550MW가 가장 높았고, 당시 전력 공급 예비율도 18.2%로 10%를 훌쩍 웃돌았다. 이날 최대 전력은 9만MW, 예비력은 1만618MW로 '정상' 상태이며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은 발전소 고장 등 비상 상황까지 고려하면 통상 10%는 넘어야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주는 휴가 극성수기에다 공장 가동도 줄며

전력 여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업 휴가 복귀에 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둘째 주 전력 수요는 전주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둘째 주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최대 전력 수요는 9만1700MW~9만5700MW 수준으로, 지난해 여름 전력 피크일인 7월 27일 기록한 9만1141MW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미 지난달 7일 전력 수요는 9만3078MW까지 치솟아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선 상황이다. 산업부 전망대로라면 이번 주 중에는 전력 수급 정보 '준비'가 발령된다. 예비력이 5만5000M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정보 '준비'가 발령되고, 이보다 더 내려가면 '관심'(4

만5000MW 미만)·'주의'(3만5000MW 미만)·'경계'(2만5000MW 미만)·'심각'(1만5000MW 미만) 순으로 경보 수위가 높아진다. 준비 단계부터 비상수급대책본부가 운영되며 대국민 절전 요청이 이뤄지고, 관심 단계에선 전압 하향 조정을 통한 수요 감축 유도나 공공기관의 비상발전기의 가동 등이 이뤄진다. 경계 단계에 이르면 긴급절전 수요 조정 조치를 취하며, 심각 단계가 되면 일부 지역에 강제로 전력을 끄는 순환 단전(긴급 부하조정)을 실시한다. 경계 단계에 이르면 긴급 절전 조치를, 심각 단계가 되면 일부 지역에 강제로 전력을 끄는 '순환 정전' 조치가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계획예방정비 중이었던 일부 원전이 본격 재가동되며 변덕스러운 날

씨에도 전력 공급에 여유가 생겼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월성 원전 2호기(1만MW)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발전을 재개해 지난 2일 100% 출력에 도달했다. 월성 원전 2호기(7000MW)도 지난 4일 발전을 재개해 5일 정상 운전 출력에 도달했다. 아울러 한빛 3호기(1만MW)의 계획예방정비 기간도 이달 13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8월 중순부터 전력 수급에 다시 기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전력 수요 피크 시기에 공급 능력을 총동원해 9200MW의 추가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에는 냉방기 순차 유휴, 여름휴가 분산 등에 동참할 것 독려하고, 공공 부문은 발전기 출력 상황, 신규 설비 시운전 등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승호기자

휴테크 안마의자, 쇼핑 특집전 진행

11일, 14일 '휴(休)캉스 세일 홈쇼핑 특집전'



안마의자 전문 고급러그,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미니 진동 마사지와 함께 끝반마사지기, 눈마사지기, 발마사지기 중 1종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14일 오후 8시25분 신세계쇼핑에서 진행되는 2차 휴캉스 세일 홈쇼핑 특집전에서는 ES9 안마의자를 준비했다. 모든 고객에게 10만원 일시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눈 마사지와 안마의자 전용 고급러그를 증정한다. 휴테크 뉴커머스트 고재현 부장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일상에서의 휴식을 선물하고자 이번 휴캉스 세일 홈쇼핑 특집전을 준비했다"며 "휴테크는 앞으로도 브랜드 철학인 'Inspiration of your Life'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휴식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휴캉스 세일 홈쇼핑 특집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휴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유나기자



제주 항공권 ↓ 국내 유류할증료, 1만원대로 '뚝'

다음달 국내 유류할증료 1만8700원 확정

국내 유류할증료가 1만원대로 떨어졌다. 최근 국제 유가가 지속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 유류할증료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객에 어려움을 겪었던 항공사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9월 국내 유류할증료를 1만8700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8월(2만2000원)과 비교하면 15% 내렸다. 올 2월에만 해도 55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는 8월까지 무려 300% 증가했다. 할증료 급등으로 항공권 가격도 치솟았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 왕복 항공권의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는 5만2000원 정도였다. 내달부터는 4만원 중반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지속 하락하며 유류할증료 또한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할증료를 결정짓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현물 시장 가격은 지난 6월21일 배럴당 174.01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약세를 보이며 같은 달 30일에는 150.62달러까지 내려왔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가 국내 시중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주 정도 걸리는데, 비축유를 감안하면 최대 4주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중순 발표될 전망이다. 국내선 할증료가 내리면서 국제선 또한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구간별로 4만2900~33만93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4만6900~26만7300원이다.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7월 국제선 적용 유가 평균은 갤런당 364센트, 배럴당 152.88달러였다. 8월에는 361.98센트, 배럴당 152.03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유가 하락세에 향후 항공권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을 늘리고 있어, 가격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8월 국제선 주간 운항 횟수를 지난달 대비 11회 늘렸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17회 증편했다. 이슬비기자

"곡물가 상승세 꺾였다"...식품업계 4분기엔 웃는다?

식품업계, 곡물가 하락하면 수혜도 가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했던 국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속 돌아서고 있다. 곡물 수입 가격이 3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 이후부터 식품업계의 원재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여름 곡물가 인상 등의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주요 식품기업들의 경우 곡물가 안정에 따른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원가가 크게 줄면서 이익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달대비 8.6% 하락한 140.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중 곡물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1.5% 하락한 140.9% 포인트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밀과 옥수수 수출이 재개됐고,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밀 수확이 본격화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설명이다.

8월 들어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하는 9월물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부셸(27.2kg)당 7달러 수준으로 지난 3월 14달러25센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 가격도 6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수입 곡물이 선물보다 3~6개월 가량 앞서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곡물 가격은 올 4분기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다. 올해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던 주요 식품기업들은 일제히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주요 수입 곡물 가격이 안정되면 식품업체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제품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 2분기에 계약한 수입 곡물이 실제로는 3분기에 들어오므로 당분간 원재료 단가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수입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에는 원재료 부담이 크게 줄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업체들은 4분기에 추가 이익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에 따른 마진폭 증가는 물론 곡물가 안정에 따른 제품 생산비 감소가 맞물리며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2~2013년 주요 식품 기업들이 곡물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후 2014~2015년 곡물 가격 하향 안정으로 영업이익을 큰 폭 늘렸다. 증권가에서는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CJ제일제당은 올해 밀가루 28.7%, 식용유 9.8%, 장류 9.5%, 축식밥 7~8%, 죽 15%, 만두 5~6% 등 수입 곡물이 사용되는 대부분 제품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이외에도 양반죽 15%, 냉동만두 5% 인상에 나선 동원 F&B, 장류 11.3%를 올린 대상, 만두 5.9%를 인상한 풀무원도 수혜주로 꼽힌다. 롯데제과, 농심, 해태제과도 4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업체들이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까지 식품업체들의 원가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예상보다 곡물 안정세가 빨라지면 판매가를 일찌감치 올린 업체들은 마진폭 개선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 3분기까지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추진한 식품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예상된다"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오늘의집, '오!손도손 마켓' 오픈...소상공인 판로 지원



오늘의집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오!손도손 마켓'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판로를 지원하고

중기부·유통센터와 우수 소상공인 특별전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오늘의집이 최초로 협력해 선보이는 우수 소상공인 상품 특별전이다. 오손도손 마켓은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총 20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가구, 조명, 패브릭, 생활용품 등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연관된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가구와 조명, 패브릭 등의 제품군은 아이디어와 디자인,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만, 대규모 광고와 대형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가 쉽지 않았다. 오손도손 마켓은 판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오늘의집 고객들을 소개한다. 오늘의집 고객들도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오늘의집은 오손도손 마켓 기획전 내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손도손 마켓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도 제공한다. 김재환기자

대한항공, 추석맞이 '스카이패스 딜' 기획전 진행

대한항공은 추석을 맞아 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스카이패스 딜(SKYPASS Deal) 2차' 기획전을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의 테마는 '마일리지로 준비하는 추석'으로 마사지기, 홍삼 제품 등 건강/효도 상품을 비롯한 총 24개 품목을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 또는 마일리지 몰 상단 배너를 통해 '스카이패스 딜' 사이트로 이동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정수량 판매 예정으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이번 2차 기획전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8월초에 기

획전을 시작해 마일리지로 미리 연휴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대한항공은 다가오는 가을에 레저용품 관련된 기획전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도 시즌별 다양한 테마로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 뉴스